

보도 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 일시	2021. 5. 31.(월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 성 과	영종청라개발과
담 당	과장 윤문상, 제3연륙교팀장 박춘곤, 담당 오영림(032-453-7621~4)

“제3연륙교 건설 관련 토사 무상 확보로 사업비 63억원 절감”

시청 미래산업과·인천로봇랜드 적극 협조… 예산절감·토사 부족 미연에 예방 효과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청 미래산업과 및 (주)인천로봇랜드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3연륙교 건설 공사에 필요한 토사를 무상으로 확보, 약 63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.
- 건설공사 현장에서 순성토(쌓을 흙) 필요시 일반적인 경우 토취장을 확보후 토사 운반비만 설계에 반영하게 되나 도심지나 영종도처럼 섬 지역에서는 토취장(임야 등) 확보가 어려워 토사 구입비 및 운반비를 함께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사가 직접 토사를 확보하게 된다.
-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9월 제3연륙교 2공구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인천로봇랜드 조성과 관련한 사토 반입 및 부지 정지공사 과정에서 인천 시내 아파트 공사 현장 등으로부터 양질의 토사를 반입한다는 것을 파악하고,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주무부서인 시 미래산업과 및 (주)인천로봇랜드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인천로봇랜드가 사용하는 토사 외에 추가적으로 양질토사를 무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.
- 이번에 확보한 토사는 25톤 덤프트럭 기준 45,600대에 달하는 총 547,000m³로, 제3연륙교 건설 공사에 필요한 △1공구 263,044m³ △2공구 218,412m³

△3공구 및 제작장 등 추가 소요수량 65,544m³을 합친 것으로, 제3연륙교 원안 설계 당시 반영한 토사구입 및 운반비 총 63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셈이다.

- 인천경제청은 이번 양질의 토사 무상 확보로 예산 절감은 물론 제3연륙교 건설 과정에서의 양질토사 부족으로 인한 사업차질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.
- 최태안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“관련부서(기관)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3연륙교 공사 과정에 필요한 양질의 토사를 확보하게 됐다”며 “차질 없이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- 한편 제3연륙교는 길이 4.67km, 폭 29m의 왕복 6차로와 보도 및 자전거 도로로 건설된다. 3개 공구로 나눠 진행 중인 제3연륙교는 물량장과 해상준설 등 우선 시공분인 3공구가 지난해 말 착공됐으며 1, 2공구는 오는 7월 중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, 낙찰자를 선정한 후 오는 10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.